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강_규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파견기간	약 4개월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밴쿠버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 규모는 크지 않다. 순천향대학교보다 작다. 식당이나 도서관 등등의 기본적인 시설들은 갖추고 있다. 굉장히 평화롭다.</p>
수업	<p><i>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첫날에 시험을 본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반이 나누어진다. LEVEL BASIC 부터 LEVEL 8까지 있다. 이번 학기 파견자들은 거의 LEVEL3에 배정되었다. LEVEL에 따라 수업시간은 다르며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각 LEVEL마다 반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한 반에 한국인은 대개 1~2명 정도 배정된다. 덧붙여 모든 반은 국제학생들로만 이루어지므로 캐나디언을 만날 수 없다. 7주마다 LEVEL테스트가 있으며 70점을 넘을 경우 다음 LEVEL로 넘어갈 수 있고 85점을 넘을 경우 다다음 LEVEL로 넘어갈 수 있다. 강사는 반마다 다르며 보통 친절하지만 가끔 깐깐한 교수도 있다. 과제는 많지 않지만 적지 않다. 보통 한 시간에서 두 시간정도면 마칠 수 있다. 수업준비는 오티 때 알려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학용품은 저렴하지 않으므로 샤프와 샤프심, 형광펜 (최소 3가지 색깔)은 가져가는 것이 좋다. 수업내용은 음식, 미술, 경제, 스포츠 등등 다양하며 매주 바뀐다. 크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p>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홈스테이나 학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IE OFFICE (국제 학생 담당 부서)를 찾아갈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IE OFFICE에서 주최하는 여러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건 꼭 참여하길 바란다. I-CAFÉ, I-EXPLORE, I-SPORTS 등등 여러가지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나 같은 경우 I-SPORTS를 참여하였는데 재미도</p>

	<p>있었고 한국인 친구들도 사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보통 어학연수를 갈 때 한국인들을 최대한 피하고 외국인들만 사귀려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무조건 후회한다. 한 학기라는 시간이 짧지 않다. 현지에서 한국인 친구들이 없으면 향수병도 생기고 많이 따분할 수 있다. 가끔은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도 같이 가는 게 좋을 것이다. 참여하는 프로그램마다 지불 해야 하는 금액은 상이하며 I-SPORTS의 경우 약 20불 정도를 지불하였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3월: 거의 매일 비가 내린다. 초겨울 수준의 온도 4월: 거의 매일 비가 내린다. 초겨울 수준의 온도 5월: 자주 비가 내린다. 가을 수준의 온도 6월: 종종 비가 내리지만 맑을 때가 많다. 봄-여름 수준의 온도</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한마디로 안전하다. 다만, 다운타운에 가면 HOMELESS들이 많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 마약에 찌들은 사람들이 많으므로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제로 말을 한번 받아 줬다가 계속 따라온 경험도 있다.</p>
숙소	<p><i>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홈스테이는 복불복이다. 좋은 집에 가게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집에 갈 수도 있다. 두 달에 한번 바꿀 수 있으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면 된다. 나의 홈스테이 같은 경우, 집이 학교와 멀고 집에 애기들도 많아서 정말 시끄러웠지만, 홈스테이 엄마, 아빠가 친절해서 바꾸지 않았다.</p>
식사	<p><i>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o)</i> <i>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i> <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홈스테이 식구들의 출신지에 따라 음식은 천지차이다. 캐나다가 다문화라 아시아 출신, 유럽 출신, 남아메리카 출신 등 인종이 너무 많다. 우리집 사람들은 그냥 캐나다 출신이라 아침에는 씨리얼이나 달걀 또는 토스트, 점심에는 샌드위치나 전날 저녁에 남은 음식, 저녁에는 돼지고기나 치킨 (우리나라 그 치킨이 아닙니다.), 스파게티 정도였다. 나중에는 내가 밥을 먹고 싶어하여 쌀밥을 자주 해주시긴 하였다. 아무튼 식사는 홈스테이 가족들의 출신지에 따라 다르다.</p> <p>학교 친구들과 친해지면 종종 같이 저녁을 먹는다. 여러가지 음식을 체험해</p>

	보는 재미가 있지만 팁을 지불 해야 하기 때문에 썩 기분이 좋지는 않다.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음식점은 STEPHO'S 이며 그리스 식당이다. 특히, ROAST LAMB라는 메뉴를 추천하고 싶다.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버스와 스카이 트레인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교통 수단을 쉽게 이용하려면 COMPASS 카드를 구매한 뒤 MONTHLY PASS 를 사든가 돈을 충전해서 사용해야 한다. MONTHLY PASS가 훨씬 편하고 저렴하다. MONTHLY PASS는 1ZONE, 2ZONE, 3ZONE 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ZONE은 밴쿠버, 2ZONE은 버나비와 리치먼드, 3ZONE은 그 외 지역이다. 한달에 한번 돈을 충전하면 버스과 스카이 트레인을 제한 없이 사용 할 수 있다. 보통 1ZONE에 홈스테이를 배정 받는 경우가 많으나 종종 리치먼드나 버나비에 홈스테이를 배정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2ZONE MONTHLY PASS를 끊는 것이 이득이다. 나 같은 경우는 밴쿠버와 버나비 경계에 살아 가까운 전철역이 버나비 지역이고 버스 정류장은 밴쿠버 지역이었다. 굉장히 애매했으나 1ZONE을 구매한 뒤 추가요금을 충전하여 교통편을 이용했다. (다른 지역까지 스카인 트레인으로 가는 경우 추가요금 1.5 달러) 사실 보통 버스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참고로 1ZONE MONTHLY PASS는 약 90달러 정도이다. COMPASS 카드는 6달러이며 충전 및 구매는 가까운 스카이 트레인 역에서 할 수 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100만원	
Fees	7주당 3000 달러이지만 지불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4개월에 약 40만원	
숙소	한 달에 800 달러	
식비	한끼 식사 당 약 20~30달러	
교통비	한달에 약 100달러	
책값	4개월에 약 30달러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크게 필요한 것은 없다. 홈스테이 집에서 모두 제공해주고 현지에서 사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은 꼭 들고 가야하고 비행기 티켓은 왕복으로 구매 해야 한다. 또한 선글라스를 꼭 가져가길 바란다. 햇볕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해 선글라스가 없으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이다. 갈 때 속옷이나 수건, 기본적인 학용품 등은 가져가는 것이 좋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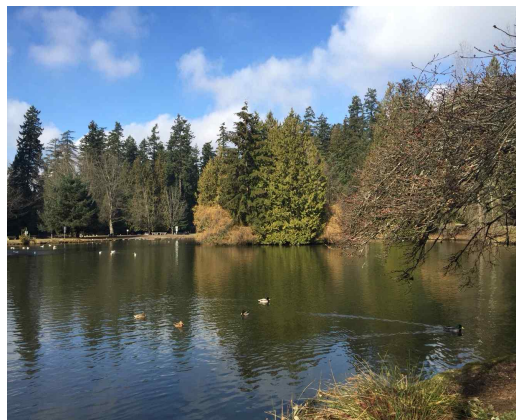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 특히 중국인이나 일본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면 크게 바뀔 것이다. 세상의 크기를 실감 할 수 있고 작은 여유나 소소한 즐거움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캐나다이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 노력하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번쯤은 주위를 둘러보며 마음 편히 현재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 할 수 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언어를 배우기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캐나다 어학연수를 한 학기 다녀오면서 언어보다는 캐나다의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그 문화를 보며 내 삶의 태도에 대해 많이 생각 해본 것 같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조급하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결국 행복 하려고 사는 것인데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현재의 행복을 느껴가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를 갔다 와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배워왔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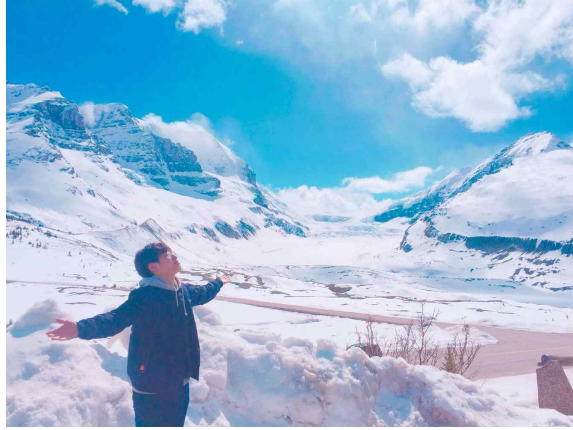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집 앞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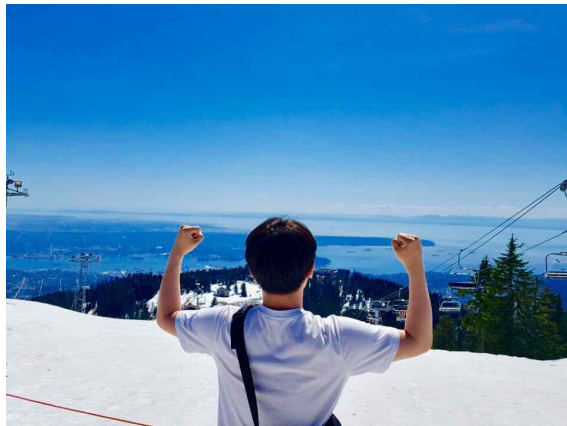
EVA



록키 마운틴



리치먼드 스피드 레이싱



그라우스 마운틴



잉글리시 베이